사단법인 전국기자협회

전남도민일보

제 3823 호 대표전화 (062) 227-0000 jndomin.kr (음력 08월 01일) 2026년 09월 11일 금요일

(주) 하랑 A+
전국최고 분양대행 선두주자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번영로 53, 4층 T.062)673-2900

전남광주특별시, '다목적 전기차 성능평가 기반 구축' 나선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미래차 탑재모듈 상용화 기반구축 운영위원회를 열고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

10일 첫 운영위 회의…5년간 115억원 투입

빛그린산단 검증시스템 구축·PBV 기업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미래차 시장의 핵심인 다목적차량(PBV)의 전기차 전환을 이끌 성능평가 기반 구축에 본격 나선다. 전기차 플랫폼 확산에 발맞춰 지역 자동차 부품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 생태계의 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10일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에서 '미래차 탑재모듈 상용화 기반구축 제1차 운영위원회'를 열어, 사업 시행 방향과 기관별 역할을 공유했다.

'미래차 탑재모듈 상용화 기반구축'은 산업통상부의 '2026년도 자동차 분야 신규 기반조성 사업' 공모에 맞춰 전기차 플랫폼과 몸체(어퍼바디) 결합에 따른 전력공급 안전성, 차량주행 안정성, 통신 탑재 모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2030년까지 5년간 국비 80억원과 시비 35억원 등 총 115억원이 투입된다.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이 사업을 총괄하고 한국자동차연구원 등 참여기관으로 공동 수행하며, 약 50개에 이르는 다목적차량 제조기업이 수혜 대상이다.

사업 추진을 위해 빛그린국가산단 내 기존 건물과 장비 166종을 연계 활용하고, ▲전력공급·주행 안정성 검증시스템 ▲차량용 통신 탑재모듈 성능 검증시스템 등 핵심 성능평가 장비 2종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 자동차 부품기업에 설계·해석, 시제품 제작, 시험평가·인증, 기술컨설팅, 지식재산권 확보 및 판로 개척까지 전주기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날 첫 운영위 회의에서는 1차년도 사업계획, 사업비 집행, 기업지원을 위한 수혜기업 모집 계획 등을 논의하고, 사업의 체계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한 별도의 지침을 마련했다. 회의에는 김혁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자동차산업기반실장, 성백섭 조선대학교 교수, 조동민 광주테크노파크 책임, 정상호 광주과학기술원 박사 등이 참석했다.

이동현 미래차산업과장은 "다목적차량은 물류, 배송, 의료,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한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으로, 전기차로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 사업을 통해 지역 기업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아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지역 부품기업의 미래차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힘을 보탤 방침이다. 특히 기업별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으로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앞으로도 미래차 산업 생태계 조성과 지역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가영 기자

하노버 IAA서 최초 공개 '더 기아 PV7', 대형 전동화 PBV 시장 공략

기아 대형 전동화 PBV '더 기아 PV7(The Kia PV7)'이 독일 하노버 상용차 박람회의 주인공이 될 전망이다.

기아는 유럽 C-세그먼트 전기 밴 시장에서 대활약을 펼치고 있는 첫 전용 PBV 모델 'PV5'에 이어, 두 번째 PBV 모델인 'PV7'을 유럽 시장에서 세계 최초 공개하며 현지 전동화 모빌리티 시장 내 주도권을 강화한다. 기아는 오는 14일(월, 현지시간) 독일 하노버에서 개막하는 세계 최대 상용차 박람회 'IAA 트랜스포테이션 2026(IAA TRANSPORTATION 2026, IAA)'에서 1,531㎡(제곱미터) 규모의 전시 부스를 마련하고 PV7 라인업 3대와 PV5 라인업 7대를 전시하는 한편, 고객의 비즈니스와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변화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서의 PBV 비전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10일(목) 밝혔다.

기아는 글로벌 상용차 격전지로 꼽히는 하노버 IAA 무대에 2회 연속 참가한다. 직전에 열린 'IAA 트랜스포테이션 2024'에 브랜드 최초로 참가하며 유럽 PBV 시장 진출을 선언한 이후 올해 다시 한번 PBV를 앞세운다.

기아가 이 자리에서 완전 신차인 PV7을 선보이는 것은 현지 상용차 시장에서 전동화 흐름이 거셀 뿐만 아니라, 지난해 말 현지에 출시한 PV5가 높은 상품성을 바탕으로 현지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조사기관 '데이터포스(Dataforce)'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유럽 전기 경상용차(eLCV, electric Light Commercial Vehicle) 시장 규모는 12만 5,069대로, 전년 동기 대비 10.2% 성장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경상용차(LCV) 시장이 8.7% 축소된 120만 6,458대를 기록한 것을 감안할 때 전동화 흐름이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중형 PBV PV5가 속한 유럽 C-세그먼트 밴(CVAN) 시장 역시 전동화 흐름이 본격화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디젤 등 전체 파워트레인을 아우르는 유럽 C-세그먼트 밴 시장이 전년 동기보다 2.5% 늘어난 34만 375대 규모를 보인 가운데, 같은 기간 C-세그먼트 전기 밴(eCVAN) 시장은 26.6% 증가한 4만 4,810대 규모로 성장하면서 유럽 C-세그먼트 밴 시장 내 비중을 10.7%에서 13.2%로 확대했다.

/이가영 기자